

2026. 06.
제 6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 분야 협력 사업 현황]

2025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2025)

시시대, 아동기 사회정서역량 발달의 쟁점과 대응 방안(2025)

서울시 제5차 보육 중장기 계획 수립(2025)

서울형 키즈카페 체계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2024)

한국 아동은 세계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와 자기주도성 등 비인지적 지표는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비대칭적 발달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아동 정책이 인지적 성취와 물질적 지원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바탕으로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가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 핵심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제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 제6조):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최대한 발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
- 놀이권(Right to Play, 제31조): 아동의 휴식과 여가, 놀이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 제17호)는 놀이를 아동 발달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국가의 적극적 보장 책임을 강조함

이미지 출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아이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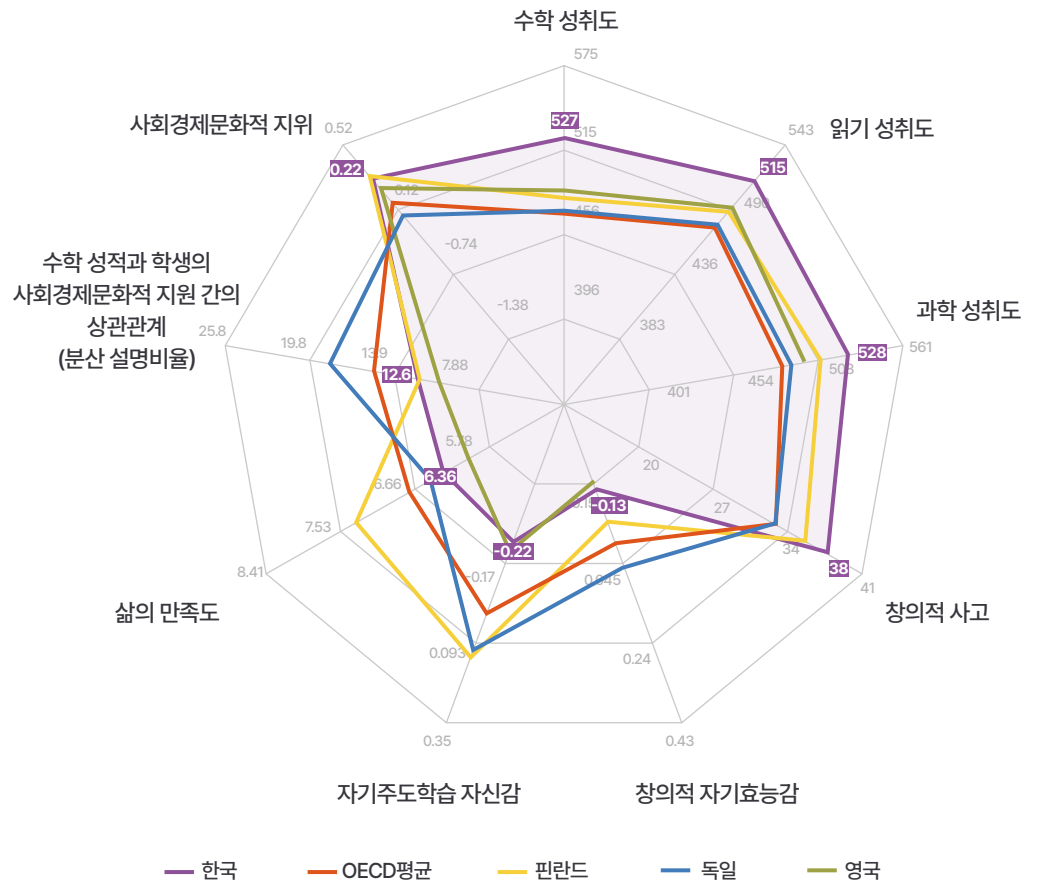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며 아동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아동 정책은 놀이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적 정책 체계'로 정교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리뷰는 아동의 놀이권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아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평가체계 구축, 종일형 돌봄·놀이 인프라 확충,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이라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PISA지표로 살펴본 아동발달 평가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발달 및 교육 지표 특성

-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은 각국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환경, 비인지적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핵심 지표임
- 『교육정책전망 한국 보고서(Education Policy Outlook in Korea, 2025)』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발달 지표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와 자기주도성 등 비인지적 발달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높은 성취-낮은 안녕’의 비대칭형 발달 구조는 아동의 학습 환경이 성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단위: 점, %)



출처: OECD, PISA 2022 Results: Factsheets, Education GPS 재구성, <http://gpseducation.oecd.org> (2026. 4. 21. 인출)

주) 성취도 영역은 PISA점수, 삶의 만족도는 0~10점 척도이며, 상관관계는 분산 설명 비율(%)를 나타냄.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자기주도학습 자신감,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OECD 평균 0, 표준편차를 1로 설정한 척도 지수(index)임

그림 1 주요국 아동의 발달 및 교육 지표 비교(PISA, 2022)

- 한국 아동의 수학(527점), 읽기(515점), 과학(528점)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며, 수학 성취도는 OECD 평균보다 55점 높음. 신규 평가 영역인 창의적 사고(38점)에서도 핀란드(36점)와 독일(33점)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적 역량은 매우 우수함. 반면, 창의적 자기효능감 지수(-0.13)와 자기주도학습 자신감(-0.22)은 OECD 평균(0)을 하회하며, 삶의 만족도(6.36점) 역시 핀란드(7.41점)나 OECD 평균(6.75점)에 미치지 못함. 이는 한국 아동이 객관적 성취는 높으나 학습 주체로서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낮으며, 학업적 결과가 내면의 성장과 행복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핀란드 아동의 읽기 성취도(490점)와 창의적 사고(36점)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임. 특히 삶의 만족도(7.41점)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자신감 지수(0.16) 역시 높게 나타남. 해당 지수는 OECD 평균(0)을 상회하는 양(+)의 값으로,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 주체성과 자신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성취와 정서적 안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행복감과 학습 역량이 상호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시사함. 나아가 이러한 성과는 영유아기부터 놀이를 학습의 본질로 인정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공공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은 수학 성적과 아동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간 상관관계(11.0%)가 비교국 중 가장 낮아, 견고한 '성취 형평성'을 보여줌.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가정의 자본 격차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을 의미하며, 공공 시스템이 불평등을 성공적으로 상쇄하고 있음을 뜻함. 이러한 형평성은 아동의 놀이·여가 환경을 사적 영역에 방치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적 책무를 강화하며 공공이 적극 개입해 온 정책적 성과로 해석됨
- 독일은 아동의 사회경제문화지수(ESCS)가 -0.14로 OECD 평균(0)을 하회하는 반면, 수학 성적과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분산 설명 비율)는 18.7%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전반적인 양육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성취 격차마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줌. 이에 독일 정부는 가정의 자본 격차가 아동의 발달 불평등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돌봄과 여가 영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패러다임을 선택함. 그 결과 돌봄과 놀이 시간을 아동의 '법적 권리'로 격상하여 균등한 발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격차와 소외를 허물기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을 국가적 방향으로 삼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 핀란드의 균형, 영국의 형평성, 독일의 공공 책임성은 아동의 놀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공공의 책무'로 제도화한 결과물임. 이는 높은 성취 뒤에 정서적 위축을 겪고 있는 한국 아동의 비대칭형 발달 구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다음 장에서는 이들 국가가 아동의 발달권과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한 법·제도적 기반, 교육·인력 체계, 공간 및 돌봄 인프라의 구체적인 구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아동의 발달과 놀이를 지원하는 해외 정책 사례

아동의 놀이를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 법·제도화 사례

- 영국은 아동법 개정을 기반으로 놀이전략 수립 및 지방정부 단위 법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음
 - 잉글랜드 「놀이 전략(The Play Strategy)」: 놀이 공간 개선 및 놀이 전문 인력(Playworker) 양성을 목표로 수립된 최초의 국가 차원 종합 전략임. 지방정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부모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공간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8).
 - 웨일스 「아동 및 가족 조례(Children and Families (Wales) Measure)」: 2010년 세계 최초로 아동의 놀이기회 제공을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함. 이에 따라 2013년부터 3년 주기의 '놀이 충분성 평가(Play Sufficiency Assessment, PSA)'를 도입하여 아동의 이동 거리, 공간 접근성,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여건을 종합 진단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함(Play Wales, 2026)
 - 스코틀랜드 「계획법(Planning (Scotland) Act 2019)」: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놀이 공간과 기회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의무를 계획당국에 부여함

📌 놀이 충분성 평가(PSA)¹⁾



이미지 출처: Play Wales (2026)
(<https://play.wales/>)

그림 2 State of Play 2025 보고서

- 시행 주체: 웨일스 22개 지방자치단체
- 시행 주기: 3년
- 평가 영역(9개 항목): 인구 특성, 다양한 배경 아동 욕구, 놀이 공간, 감독형 제공, 이용 비용, 접근성, 인력 양성, 지역사회 참여, 타 정책 연계
- 모니터링 및 공시 의무:
 - ① PSA 보고서 및 평가 요약개선 조치를 지자체 웹사이트에 3년 주기로 공개
 - ② 매년 PSA에서 도출된 강점 유지·약점 개선을 위한 놀이실행계획(Play Action Plan) 및 그 이행 결과 진행보고서 제출
 - ③ 22개 지자체 PSA 결과를 Play Wales가 3년 주기로 종합 분석한 웨일스 종합보고서 『State of Play』 발간

놀이를 아동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
교육과정·공간설계 사례

- 독일은 건축법을 통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놀이터를 공공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지원법(KJSG) 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의 통합과 동등한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확립함. 이를 바탕으로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기반을 마련함
 - 건축법(Baugesetzbuch): 건설 관련 공공규범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으로 제5조(토지이용계획)에 놀이시설·놀이터를 공공서비스 제공시설로 명시하고, 제9조(지구단위계획)에 놀이터를 포함함 (송윤정 외, 2023)
 -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Kinder-und-Jugendstärkungsgesetz, KJSG): 모든 아동의 통합과 동등한 참여를 아동·청소년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함(장주리, 2017)
 - 독일아동복지재단(Deutsches Kinderhilfswerk e.V., DKHW)은 아동 친화적 놀이터 10개 기준 중 하나로 ‘근접성과 장애물 없는 환경(Erreichbarkeit und Barrierefreiheit)’을 제시하여,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함(Hofmann, n.d.)
- 핀란드는 국가 교육과정에 놀이를 핵심 원리로 명시하고, 공공 놀이공간을 도시 전역에 제도화함
 -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핵심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CCECEC):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핵심 원리로 규정하며, 교사를 자율적 놀이를 관찰·지원하는 조력자로 위치시킴(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 NCCECEC이 규정한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원리²⁾

- **전인적 학습관:** 아동은 타인 및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며, 학습은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감각·신체·언어가 모두 관여하는 전인적 과정임
- **안정적 학습 조건:** 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남.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학습과 참여의 핵심 요소임
- **놀이의 다각화 역할:** 놀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활동이자 학습을 매개하는 활동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님.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념을 구성함
- **상호작용 기반 발달:** 또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고력·언어·놀이 능력이 자라는 바탕이 됨. 아동은 또래와 놀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을 배움

1) Play Wales. *Play sufficiency*. <https://play.wales/play-policy-legislation/play-sufficiency/> (2026.5.4. 인출)

2)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레이끼푸이스또(Leikkipuisto): 1914년부터 헬싱키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공 놀이공간 으로 약 70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보건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놀이지도사인 오야야(Ohjaaja) 3~5명이 상주하며 0~16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돌봄을 통합 지원함
- 캐나다는 공공·민간 영역 모두에 적용되는 발달 중심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야외놀이공간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 「7Cs」 가이드라인: 야외놀이 환경의 물리적 조건과 아동 발달을 연결하는 7가지 원칙(특성·맥락·연결성·변화·우연성·명료성·도전)으로 구성되며, 도전적 놀이를 통한 전인적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함(Herrington et al., 2007)

7Cs: 영유아 야외놀이공간 설계 7가지 원칙³⁾⁴⁾

- 1) 특성(Character): 모듈러 형태로 유기적이며 현대적인 특성
- 2) 맥락(Context)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공간적 맥락
- 3) 연결성(Connectivity): 물리적 시각적 인지적 연결성
- 4) 변화(Change): 다양한 규모와 재료, 시간에 따른 놀이공간의 변화
- 5) 기회(Chance): 어린이 스스로 창조 조작 평가할 수 있는 기회
- 6) 명료성(Clarity): 물리적 가독성과 이미지의 명확성
- 7) 도전(Challenge): 육체적·인지적 도전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 공공 돌봄·방과후 사례

- 핀란드는 무상 공교육과 학교 기반 방과후 정책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던 구조를 공공 영역으로 전면 흡수해 옴
- 종합학교(Peruskoulu): 19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9년제 무상 의무교육으로, 능력별 분반 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문상연, 2018)
- 여가활동 모델(Harrastamisen Suomen malli)⁵⁾: 청소년법에 근거하여 1~9학년 전체 학생에게 학교일과 연계 시간대에 무상 취미 및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민간 영역에 의존해 온 아동과 청소년의 취미활동의 보편적 공공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함

여가활동 모델의 사례



그림 3 짐 클럽의 운동 취미활동 사례



그림 4 할리 에이전트의 게임 취미활동 사례

이미지 출처: Harrastamisen Suomen malli (<https://harrastamisuomenmalli.fi/>)

3) 송윤정, 이상민, 강현미, 김수인. (2023).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본 국내외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제 비교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51(6), 33-45.
 4) Herrington, S., Lesmeister, C., Nicholls, J., & Stefiuk, K. (2007). Seven Cs: An informational guide to young children's outdoor play spaces. Consortium for Health, Intervention, Learning and Development.
 5) <https://harrastamisuomenmalli.fi/> (2026.5.15. 인출)

- 독일은 법률을 통해 전일제 돌봄을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공공 서비스로 전환하였음.
 - 전일제 돌봄 지원법(Ganztagsförderungsgesetz, GaFöG):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9년까지 초등학교 1~4학년 전원에게 전일제 돌봄을 보장함. 총 35억 유로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교사 1만 7,000명, 전문인력 6만 5,600명을 배치함(홍문기, 2026)
- 잉글랜드는 보편적 법정 권리 모델 대신 표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공공 방과후 서비스 확대를 시도함.
 - 방학 중 활동 및 급식 프로그램(Holiday Activities and Food Programme, HAF): 201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음.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만 5~16세 아동에게 방학 중 건강한 식사를 무상 지원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예술, 학습 지원 등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제공함

서울시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

서울시 정책의 시사점

- 서울시는 「아동의 놀이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서울형 놀봄+, 키움센터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와 창의어린이놀이터를 확대하며 아동의 놀 권리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음. 이처럼 탄탄하게 다져온 인프라적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놀이를 아동 성장의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야 함. 앞으로 아동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질적 진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발달 지원 패키지’를 표준화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아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아동 친화 생태계로 도약할 시점임

과제1. 질적 진단 평가체계 도입 및 고도화

- 놀이 충분성 진단 도입: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간 다져온 시설 수나 면적 중심의 기본적인 인프라 평가 뿐 아니라 아동이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이동 동선의 안전성, 이용 시간의 자율성, 비용 부담의 포용성 등 수요자 중심의 ‘기회의 충분성’을 종합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결정함
- 서울형 아동 발달 지표 개발: 대규모 참여 인원 확보 등 양적 성과 평가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동이 내면적으로 체감하는 주관적 행복감, 자기주도성, 또래 간 긴밀한 관계 형성 정도 등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균형 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지표 개발을 제안함
- 아동영향평가시스템 고도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 개발 및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놀이 환경과 발달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적 컨설팅을 연계함으로써, 도시 공간 전반이 아동 친화적인 생태계로 통합 작동하도록 관리함

과제2. 통합 발달 지원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전일제 돌봄의 권리 격상: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간 확충해 온 양육 지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넘어 공공의 핵심 책무이자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한 단계 격상함. 이를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일상에서 충분한 돌봄과 자율 시간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성함
- 종일형 패키지 표준모델 개발 제안: 핀란드의 종합학교(Peruskoulu) 모델을 참고하여, 기존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기초 교육 중심의 돌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함.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돌봄, 놀이, 취미, 정서 발달 활동’이 균형 있게 결합한 종합 표준 패키지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체감도를 확대함

과제3.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확산

- **공공 기반의 놀이 콘텐츠 표준화:** 핀란드의 여가활동 모델처럼 방과 후 아동의 틈새 시간을 안전하게 케어해 온 공공 돌봄의 역할을 여가·문화 영역까지 넓혀감. 아동의 주체성을 자극하는 예술·신체활동·자연 탐색 중심의 고품질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매칭함으로써, 공공 방과 후 서비스의 질적 가치와 신뢰도를 동시에 제고함
- **놀이 중심 사회적 합의 형성:** 놀이를 학업의 성취를 방해하는 학습의 반대말이 아닌, 아동 전인적 성장의 필수 원동력이자 기본 권리로 바라보는 공감대를 형성함.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의 '놀이 시간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범시민적 인식 대전환을 추진함
- **아동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 동반 가족이 모든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공공 및 민간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도시 공간 전체가 아동을 환대하는 따뜻한 친화 분위기를 조성함

연구자 | 정은주, 정유리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참고문헌

- 김명순. (2018).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57-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29712/1/2018.05%20No.259.05.pdf>
- 문상연. (2018). 핀란드의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종합학교 개혁과 관련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윤정, 이상민, 강현미, 김수인. (2023).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본 국내외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제 비교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51(6), 33-45. <https://doi.org/10.9715/KILA.2023.51.6.033>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유엔아동권리협약 아이콘 포스터. <https://www.unicef.or.kr> (2026. 5. 4. 인출)
-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 106-111.
- 홍문기. (2026). 독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추진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36, 109-116. <https://doi.org/10.23063/2026.03.9>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08). The play strategy. Crown Copyright.
-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of Canada. (2018). A common vision for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and reducing sedentary living in Canada: Let's get moving.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healthy-living/lets-get-moving.html>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EDUFI].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22.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https://www.oph.fi/en/education-and-qualifications/national-core-curriculum-ecec-nutshell>
- Harrastamisen Suomen malli. (n.d.). Finnish model for leisure activities. <https://harrastamisensuomenmalli.fi/> (2026. 5. 15. 인출)
- Herrington, S., Lesmeister, C., Nicholls, J., & Stefiuk, K. (2007). Seven Cs: An informational guide to young children's outdoor play spaces. Consortium for Health, Intervention, Learning and Development (CHIL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ttps://sala.ubc.ca/sites/sala.ubc.ca/files/documents/7Cs.pdf>
- Hofmann, H. (n.d.). Viele Spielplätze in Deutschland sind nicht kindgerecht [Pressemitteilung]. Deutsches Kinderhilfswerk [DKHW]. <https://www.dkhw.de/informieren/im-ueberblick/aktuelles/nachricht/deutsches-kinderhilfswerk-viele-spielplaetze-in-deutschland-sind-nicht-kindgerecht/>
- OECD. (2025). Education policy outlook in Korea (OECD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No. 131).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b515b9ce-en>
- OECD. (n.d.). Education GPS: The world of education at your fingertips. <http://gpseducation.oecd.org> (2026. 4. 21. 인출)
- Play Wales. (2026). State of Play 2025: A national review of the 2025 Play Sufficiency Assessments and Play Action Plans submitted by Welsh local authorities. Play Wales. <https://play.wales/wp-content/uploads/2026/01/State-of-play-2025.pdf>
- UpLift Partnership & Town of Truro. (2021). Outdoor play for children and youth policy. Town of Truro Council & UpLift Partnership, Dalhousie University. <https://truro.ca/government/policies/1307-outdoor-play-policy-2021/file.html>